

# “드루킹 수사, 말 바꾸기로 신뢰 잃어”

### 유성엽 “경찰, 수사권 독립할 수 있겠나… 특검 도입해서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은 20일 드루킹 사건 관련, 경찰 수사 발표가 거듭 반복되면서 국민의 신뢰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일부 인터넷 여론에 의해 휘둘리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대선 기간 여론조작이라는 중차대한 이슈 앞에

경찰이 보여주는 수사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유감을 표했다.

실제로 드루킹 관련 경찰 수사는 계속되는 말 바꾸기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경찰은 수사 초기, 피의자들이 더불어 민주당원임을 언론에 정식 확인해주지 않는 등 소극적 태도를 이미 보인 바 있다.

또한 김정수 의원과 주고 받은 메시지도 드루킹이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라 했으나,

어제 한 언론을 통해 김 의원이 기사 URL 등을 보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부랴부랴 김 의원이 드루킹에게 보낸 메시지가 총 14건이고 그 중 10건이 기사 링크였다고 반복 발표했다.

이에 유 의원은 “경찰이 사건의 핵심 사실을 반복하면서, 축소·은폐 수사 의혹을 스스로 키워 국민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년간 애써 노력해왔던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가 이번 부실 수사

논란으로 인해 부정적으로 인식될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경찰의 주장은 정권 눈치 보기 수사를 해온 검찰을 견제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번 사건 결과 발표는 경찰도 다들 바 없음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경찰 전체의 위신을 더 이상 떨어뜨리기 전에 특검을 도입하여 사안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

## ‘박근혜 24년 선고’ 김세운 판사 국정농단 재판부 떠난다

박근혜(66)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재판부 판사들이 흩어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형사합의22부 재판장 김세운 부장판사, 배석판사 조국인·심동영 판사가 오는 23일자로 소속을 옮기게 됐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민사신청 단독 재판부로, 배석판사 2명은 민사 단독 재판부로 담당이 변경됐다. 민사 신청사건이란 가처분, 가압류 등 본안과 별개로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사건이다.

이들 판사들은 원래 올해 2월28일자로 시행된 사무보담 변경 대상이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 구성원을 중간에 바꾸는 것은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약 2개월을 더 근무했다.

법원 관계자는 “김 부장판사는 합의부 구성이 끝난 상황이라 민사 재판부로 간 것 같다”며 “두 배석판사는 단독판사를 할 차례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약 1년 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박 전 대통령, 최순실(62)씨 등의 국정농단 혐의 사건을 진행해왔다. 여기에 최씨 조카 장시호(39)씨 등 김 부장판사 등이 법의 심판을 내린 국정농단 관련자는 13명이다.

재판부는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하면서 “대통령이 이 나라 주인인 국민에게 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는 최근 박 전 대통령 1심에 대해 “부패한 정치권력에 엄격한 단죄를 내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혐의 중 삼성 관련 미르·K스포츠재단(204억여원) 및 한국동계영재스프츠센터(16억여원) 뇌물수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경제권력 재벌총수 단죄는 불충분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민주평화당 조배숙·김경진 공동선대위원장과 장병완 원내대표가 20일 전북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민평당 “전국체전 북한팀 초청, 당론으로 결정”

### 정동영 “정현을 익산시장의 히트작… 온전한 전국체전 될 것”

민주평화당은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체전에서의 북한팀 초청을 당론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20일 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체전에서의 북한팀 초청을 당론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 간담회에서 정동영 의원은 “전국체전에 북한팀 초청은 정현을 익산시장의 히트작”이라며 “전국체전이 동네 잔치로 끝나면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북한팀이 함께하면 반쪽짜리 전국체전이 온전한 전국체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전국체전 북한팀 초청을 당론으로 결정해 청와대에 이를 요청하고 정부와 국회에도 뒷받침해서 전국체전을 남북체

전으로 만들어내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평화와정의교섭단체(민주평화당·정의당 공동교섭단체)에서 국회 결의안을 내서 익산 남북체전 참가 결의안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당에서 전국체전을 남북체전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위를 구성하고 정상회담이 끝나면 국회차원에서 법정 차권으로 제안을 하겠다”면서 “단순 예술단에서 범위가 넓어지고 신선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화당 지도부는 이 밖에도 호남 일당 독재 타파를 위한 전북도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조배숙 대표는 “평화당은 호남정신을 구현하는 정당”이라고 진단하며 “여당 지지율이 높지만 한 당이 독점할 경우 발전이

없는 만큼 호남에서 1대 1 구도를 만들어 진검승부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또 “호남 홀대론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높은 지지율에 기대서 독주체제를 만들어준다면 계속 속는 것이 된다.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견제 세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도민은 현명하다”면서 “경쟁구도에서 독주를 견제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부연했다.

정동영 의원은 “다당제가 답”이라며 “일당이 독식하게 되면 전북에 손해가 되는 것이고 정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견제세력으로 중앙정치에서도 지방에서도 확고히 자리잡겠다”면서 “호남 유권자들의 마음속에는 (일당)독주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민주당, 내달 11일 새 원내대표 선출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11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같은 달 16일에는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다.

민주당 원내대표 및 국회의장단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 이같은 사항을 보고했다.

원내대표 선거는 5월11일 오전 10시 치러진다. 당 선관위는 이를 위해 5월3일 선거 공지를 한 후 다음날 하루동안 후보자 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선거운동 기간은 4~10일이다.

원내대표 후보로는 3선의 홍영표·노웅래·김태년 의원과 4선의 조정식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회의장 후보 선거는 5월16일 오전 10시 실시된다. 6선의 문희상·이석현 의원, 5선의 박병석·원혜영 의원, 7선의 이해찬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뉴시스

## 조배숙, 고도 보존·육성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전북 익산)는 20일, 익산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 등 고도 지역의 중요 문화재에 대한 보존, 복원, 정비 사업 수행을 국립문화재연구소 등 국가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문화재 발굴 조사 및 복원 정비연구 사업은 사업완료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특히,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지정된 고도 지역의 경우에는 핵심적인 중요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국가 기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지자체와 국가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업무협약을 맺고 문화유적 발굴 및 복원정비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고도 지역의 중요 핵심 문화재에 대한 보존, 복원, 정비 사업 수행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기관 대행에 대한 근거 이외에도, 문화재 조사 연구 지원 시책 마련, 또 그에 따른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 등 고도 핵심 문화재 보존 및 정비 사업이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배숙 대표는 “고도 지역의 핵심 문화재들에 대한 복원 및 정비 사업의 공기관 대행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핵심 문화유산 보존 및 정비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강화와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세계 유네스코 문화 유산으로 등재된 익산의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의 체계적인 복원 및 보존, 정비를 통해 익산이 백제 고도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명실상부 역사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계획”이라 밝혔다. /김진성 기자

## 민주당 익산시장 후보 김영배 선출

6·1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익산시장 후보로 김영배 예비후보(전 전북도의원·시진)가 결정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제4차 경선결과를 발표하고 김영배 예비후보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익산시장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영배 예비후보는 40.45%를 얻어 김대중, 김성중 예비후보를 누르고 후보로 최종 선출됐다.

앞서 민주당 전북도당은 익산시장 후보를 확정짓기 위해 5명의 후보에 대해 1차 경선을 진행했고 상위 3명에 대해 2차 경선을 벌였다.

또 익산 광역의원 경선 결과 제1선거구에는 김대오, 제2선거구에는 김기영, 제3선거구에는 최영규 후보가 각각 선출됐다. /익산=장양원 기자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

